

수성팀 vs 미원팀...올해 경륜 '태풍의 눈'

수성팀, 슈퍼루키 임채빈 도장깨기로 주가 폭등
미원팀, 양승원·전영규 등 활약...다크호스 부상
경륜위너스 "특선·우수·선발급서 고르게 활약"

요즘 경륜계의 화두는 수성팀과 미원팀의 활약이다. 두 팀은 김포팀, 동서울팀, 세종팀이 '신승 명가'로 불리며 주목을 받는 것에 비해 '변방'이라며 한동안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수성팀에 합류한 '슈퍼루키' 임채빈(25기·30세·특선)이 동서울팀, 세종팀, 상남팀의 슈퍼특선급 거물을 차례차례 이기는 '도장 깨기'를 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미원팀도 양승원(22기·31세·특선)이 지난해 10월 30일 동서울팀 슈퍼특선 정하늘, 31일 '슈퍼루키' 임채빈을 이긴데 이어 올해는 3월27일 김해B팀을 대표하는 박용범을 제압했다. 우수급 황영근(15기·43세·우수)도 3월5일과 6일 창원 경주에서 1·2착에 이어 4월 9일과 10일에도 창원에서 2·1착을 기록했다. 여기에 김지식(23기·31세·우수)이 5월28일과 29일 부산에서 1·2착을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수성팀은 2019년 9월 대구팀에서 일부 선수들이 독립해 팀명을 알리기 시작했다. 19기 수석 졸업생 류재열(19기·34세·특선)을 중심으로 류재열의 형 류재민(15기·36세·특선), 김민준(22기·29세·특선) 김원진(13기·39세·우수)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데뷔한 임채빈을 비롯해 25기 안창진, 김우영, 노형균(이상 우수)을 영입했고 24기 명경민, 배준호, 송종훈(이상 우수) 등이 합류해 경상권을 대표하는 팀을 구성했다.

수성팀에서 노장급인 류재민은 5월30일 광명 경주에서 예상 밖의 1착을 기록해 단승 22.9배를 기록했다. 김원진은 6연승을 기록 중이며 김형모(14기·38세·우수)도 선전하고 있다. 선발급에서 올라온 정동호(20기·32세·우수)는 우수급에서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그 외 팀 내 만능 김민욱(11기·43세·선발)과 신에 명경민(24기·29세·우수)의 기세도 좋다.

●경륜 변방이던 미원의 부활

한동안 명맥만 유지해 온 미원팀도 부활의 기지개를 켜며 강한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1세대인 1기 우일용(은퇴)과 신양우(1기·49세·우수)가 초기 명성을 날렸지만 그 뒤를 이을 선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멤버들이 40대에 접어들어 가운데 14기 김명래(39세·우수)를 비롯해 15기 박훈신(38세·우수)과 16기 최근식(39세·우수) 등이 가세했지만 어려운 훈련 여건과 노장들



1 제주 전지훈련 중 한라산 백담에서 유니폼을 펼쳐며 개성있는 포즈를 취한 수성팀 선수들. 2 2019년 춘천지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미원팀과 우일용 훈련지도관(맨 왼쪽). 사진제공 1 국민체육진흥공단

의 비율이 높아 기량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어급인 17기 전영규(36세·특선)를 영입하면서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미원팀은 인근 읍성팀을 통합하며 이후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특선급 신동현(23기·31세)은 2월26일과 28일 광명 경주에서 1·3착에 이어 3월 28일과 6월13일 광명에서 2착을 했다. 권혁진(21기·31세)은 지난해 말 3연속 3착에 이어 올해 5월29일 3착을 기록했다. 이성용(16기·36세)은 3월7일 1착을, 최종근(20기·30세)이 2월27일과 4월3일 각각 2착을 했다. 우수급 황영근과 김지식은 물론 선발급에서 김덕찬(8기·43세)과 김영진(20기

·31세)의 선전 속에 이복희(24기·27세) 이찬우(21기·32세)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각각 부산과 광명에서 내리 3연승을 이어갔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수성팀은 최근 대구 벨로드롬 공사로 창원, 부산경륜장, 영주훈련원에서 맹훈련을 하며 상승세에 있고 미원팀은 코로나19 휴장이후 개인 위주이던 훈련 방식을 재개장 이후 팀훈련으로 바뀌 훈련 강도도 높아졌다"며 "팀 내 에이스인 특선급의 고른 성장이 허리 격인 우수급으로 이어지고 선발급까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여름철 두 팀을 주목할 하다"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2021시즌 경정 하반기 주목할 만한 선수는?



7기 손동민 14기 고정환 14기 이지은

'스타트 0.05초' 손동민 주목

14기 고정환·이지은도 유망주로 큰 기대

경정의 부분 재개장 이후 기량이 급성장한 선수들이 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첫 번째 선수는 7기 손동민(B2 39세), 53kg의 가벼운 체중과 탄탄한 조종술을 겸비했으며 무엇보다 고감도 스타트가 돋보인다. 2019년 시즌에 플라잉(사전 출발)을 전반기에 1회, 후반기에 연속 2회를 기록했다. 주선보류 1회가 남아 전체 주선보류 2회가 된 상황이다. 올해 10월 까지 사전출발 위반 소멸일이 남아있지만 제재 복귀 후 첫 경주에서 0.19초와 0.09초의 스타트로 2019년을 마무리했다.

올해 들어 강력한 스타트 승부는 이어지고 있다. 총 4회의 플라잉 스타트 경주에서 2코스 0.05초, 5코스 0.14초, 1코스 0.14초, 5코스에서는 0.08초를 끊었다. 월등한 시속과 과감한 1턴 공략으로 승률 14% 연대를 57% 삼연대를 100%를 기록 중이다.

손동민의 후배 기수들도 약진 중이다. 14기 고정환(B 2 34세)은 2019년까지는 기록이 심했지만 2020년 1회차와 43회차에 출전해 3연속 입상을 기록했다. 올해는 5회차(3월 3·4일)와 19회차(6월 9·10일)에서 입상 3회를 추가해 B1급으로 특별승급을 노렸으나 6월10일 2일차 3경주에서 선두 경쟁 중 마지막 2턴 마크에서 실축해 어렵게 목표치를 이루지 못했다.

14기 이지은(B2 31세) 역시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뷔 후 작년까지 전반적인 경기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입상이 온라인 스타트에서 나왔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지난해부터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2020년 3회차(1월 15·16일)와 43회차(11월 11·12일)에서 2착 1회, 3착 2회를 거두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올해 6회차(3월 10·11일)와 18회차(6월 2·3일)에 2착 2회와 3착 1회를 추가해 입상 후보로 올라섰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 전문가는 "후보생 때부터 충분한 훈련을 하고 데뷔하는 만큼 선수들의 기량 차는 크지 않다"며 "16기 막내들도 과감하게 우승권을 공략하며 배당까지 선사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주 추리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 과몰입 극복해요”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참가자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가 2017년부터 광명YMCA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게임·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심리지원사업 '2021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게임과 스마트폰 등에 과몰입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8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이다. 25명을 선정해 전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올바른 성

장 발달을 돕는다. 또한 체육활동을 접목시켜 경륜사업과 연계된 자전거를 활용하는 활동 치료도 병행한다. 수시모집이며 '광명YMCA 심리상담교육센터 마음씨'에 전화하면 된다. 12월까지 진행되고 이 기간 개인심리상담 13회와 이론교육과 주행자세 및 안전한 주행습관 등 기초교육을 실시한 뒤 2회에 걸쳐 자전거 라이딩을 하게 된다. 90% 이상 출석한 참석자에게는 개인자전거를 제공한다.

국민체력100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7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국민체력100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한다. 공단의 체육 복지 프로그램인 국민체력100과 협업, 지역 주민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대상은 하남시 거주 30~40대 여성들로 100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상

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 신청 기간은 25일까지이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28일 미사경정장에서 개인별 체력 사전측정을 한다. 이후 7월1일 온라인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고 8주 동안 16회에 걸쳐 체중 감량을 위한 순환 운동을 실시한다.

생활체육

합합·당구도 OK...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모여라

12개 시·도 16개 종목 31개 대회 개최
5대5 야구 등 미니멀 스포츠 포함 눈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2일 강원

도 양구군에서 열린 '청소년스포츠한마당 강원도 풋살 대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2021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는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선수 등록 여부나 소속과 관련없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하는 대회이다.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스포츠교실, 학교밖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8개 시·도체육회에서 14개 종목, 19개 시도별 대회가 열렸다. 올해는 규모가 확대돼 12개 시·도에서 16개 종목, 31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최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목인 5대5 길거리야구 형식의 '베이스볼5', 청소년이 선호하는 미니멀 스포츠(3×3농구, 4인제 배구, 5인제 하키) 등 새로운

경기 방식도 포함한다.

합합댄스 대회(대한어어로빅합합협회 주관)는 3~5명으로 이뤄진 크루의 단체전 형식으로 열린다. 사전에 촬영한 팀별 영상을 협회에 제출하고 대회 당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 및 심사를 진행한다.

당구 대회(대한당구연맹 주관)는 각 시·도별로 지정된 17개 공식 당구 경기장에서 실시간 화상 경기를 실시하고 시청자의 채팅 응원전, 당구 관련 퀴즈 등 온라인만의 특성을 활용해 재미와 흥미를 더하게 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50인 이하

행사로 운영되거나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뿐만 아니라 종목 활용 번외경기, 국가대표 코칭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전연습 기간(사전연습Day)을 마련해 대회 참가 전부터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결과에 따른 시상 외에도 페어플레이상(대한체육회장상), 베스트팀명상, 팀워크상 등 다양한 시상도 계획하고 있다.

대회일정 및 요강, 경기결과, 경기영상 등 상세 정보는 신규 오픈한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대회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